

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서울특별시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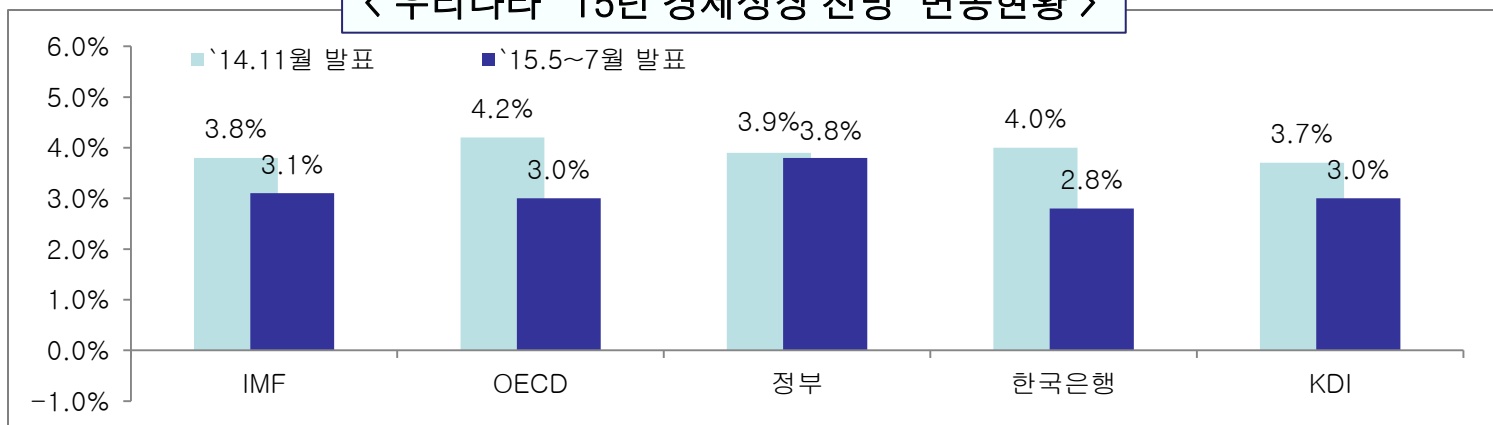
- 1 메르스 이후 경제동향
- 2 2015년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
- 3 2015년 추경예산안 규모
- 4 분야별 주요 사업

1. 메르스 이후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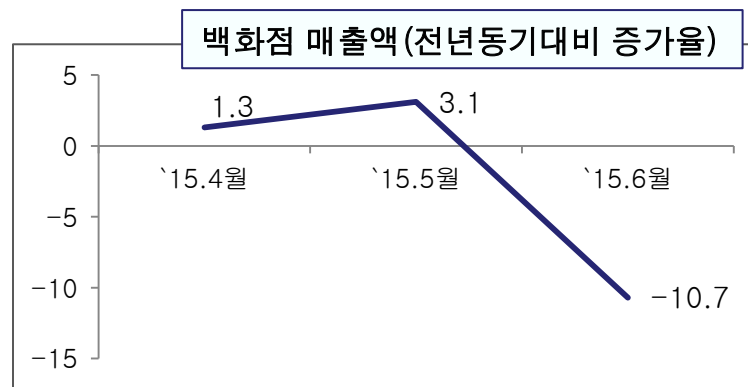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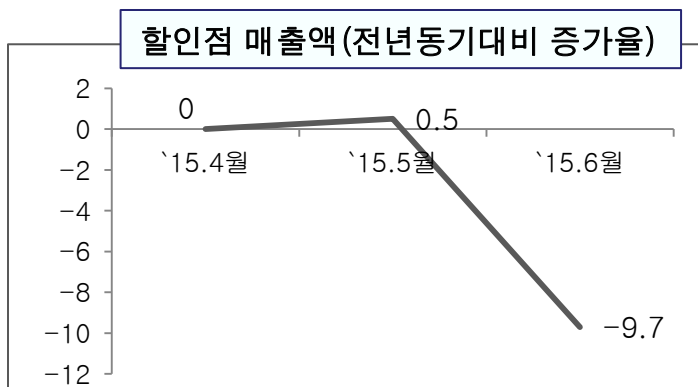
■ 지속 되는 국내경기 침체 속 메르스 충격으로 더욱 어려움

– '15년 경제성장 전망 : 4.0%(한국은행, '14.11월) ⇒ 2.8%(한국은행, '15.7월)

〈 우리나라 '15년 경제성장 전망 변동현황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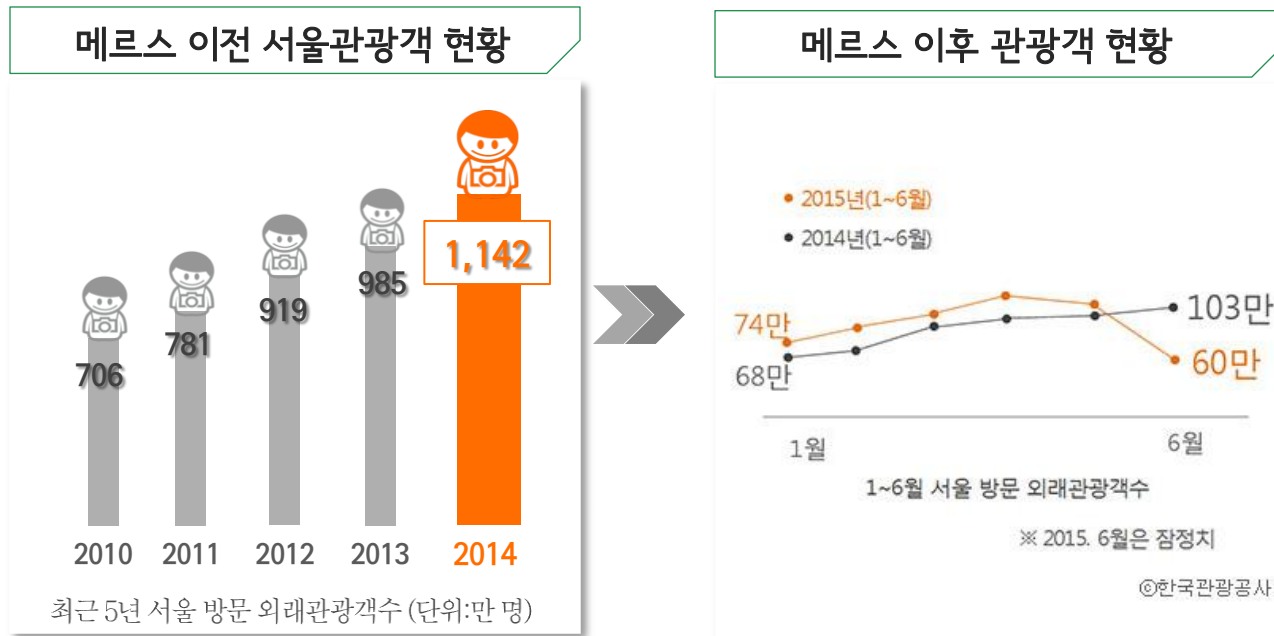
■ 메르스 영향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민간소비 둔화 ※기획재정부 경제동향('15. 7월) 발췌



1. 메르스 이후 경제동향

■ 관광 업계를 중심으로 메르스 발생(5월) 전 대비 소비 감소

– 메르스 이후 방한 취소 단체관광객 : 13만여 명(동남아, 중국권역 76.7%, 6월말 기준)



■ 메르스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 및 서울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요구 증가

※ 행정자치부 : 자치단체 하반기 추경 확대편성 협조요청(7월14일,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)

2.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

1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

-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· 보건소 시설장비 확충

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

- 메르스 이후 크게 위축된 중국,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마케팅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

3 침체된 문화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

-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 · 예술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 및 메르스 직접 피해 상권 등 대상으로 문화행사 지원

4 소상공인,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안정 지원

-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,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서민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일자리 사업 등 지원 확대

2. 2015 추경예산안 편성방향

5 소방·재난 및 사회·보건 안전망 구축

-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, 일상 생활에서 시민 안전체계강화를 위한 투자사업,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등

6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연내 마무리 사업

-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민 이용 시설 중 연내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지원

7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

- 2015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(의료급여, 가정양육 수당 등)에 따라 매칭이 필요한 시비 부담분 반영

8 기타 의무적 경비

- 2014년 결산 결과에 따라 자치구교부금, 교육청 전출금 등 의무경비에 대해 법정 비율 반영

3. 2015년 추경예산안 규모

■ 금회 추경규모 - 8,961억 원 (기정예산 대비 3.5 %증가)

단위 : 억 원

구 분	추경예산안 규모			
	추경예산안	기 정 예 산	금 회 추 경	%
총 계 규 모	264,687	255,726	8,961	3.50
일 반 회 계	190,093	182,848	7,245	3.96
특 별 회 계	74,594	72,878	1,716	2.35

- 실 집행 사업비 5,089 억 원
- '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 전출금 등 3,872 억 원

3. 2015년 추경예산안 규모

■ 세입예산안 - 8,961억 원

- 취득세 증가 등 세입 조정 1,500억 원
 - 부동산 거래 전년대비 39.2% 증가 ('14년 121,184건 → '15년 169,672건)
- 지방교육세 150억 원
 - 취득세에 병과(10%)되는 지방교육세로 취득세 증가분에 따른 비율 반영
-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원
 -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 소비세 인상 재원의 20%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
 - ※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부칙2조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75%이상 소방분야에 투자
- '14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4,199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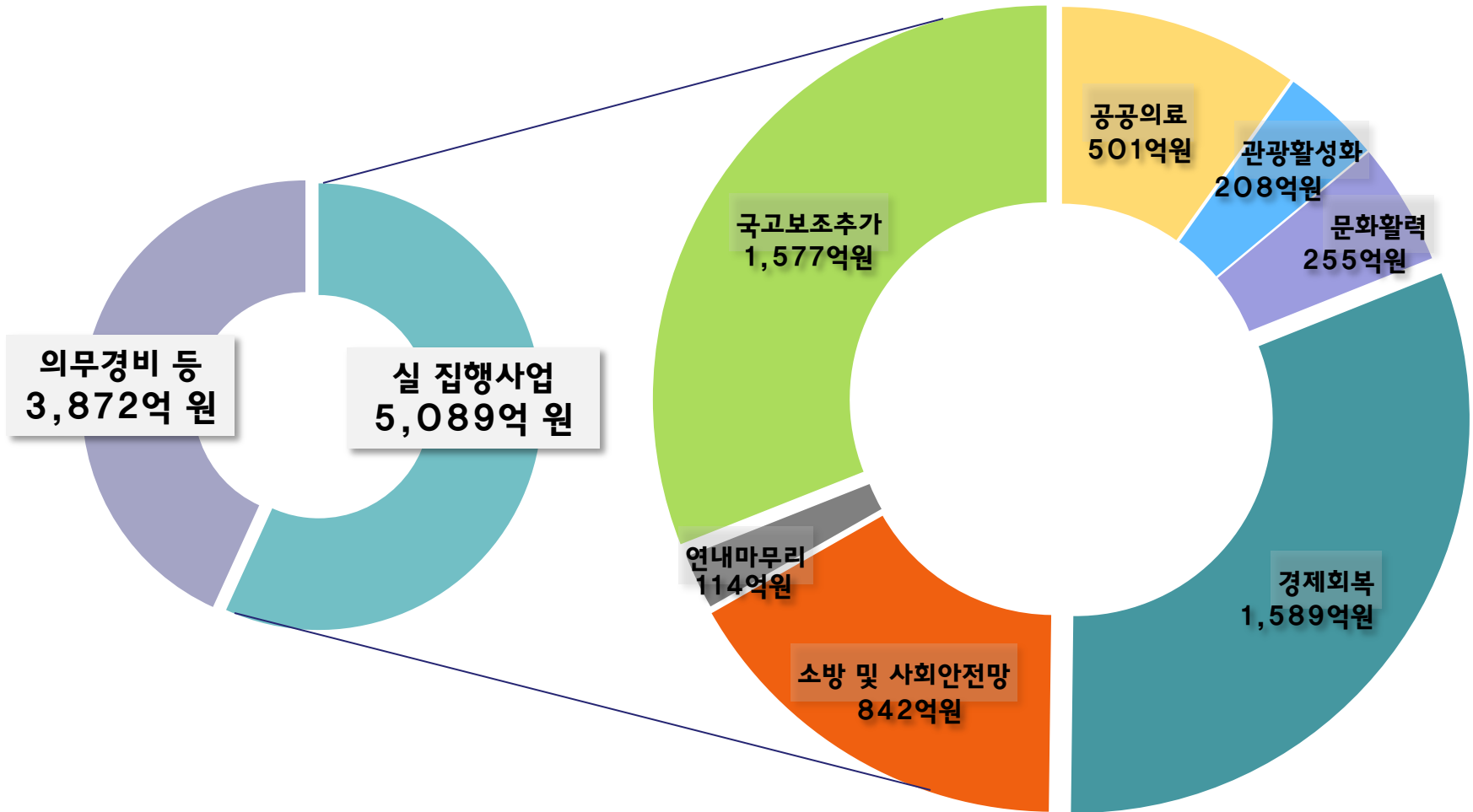
3. 2015년 추경예산안 규모

- 세외수입 조정 △ 361억 원
- 국고보조 확정내시 547억 원
- 특별회계(회계간 전입금 등) 1,716억 원
- 지방채 발행 1,000억 원
 - 1,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메르스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자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

➡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세출 예산사업 절감 등 감액(△558억 원)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 판단

3. 2015년 추경예산안 규모

■ 세출예산안 - 8,961억 원



4.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

1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- 501억 원

편성방향

- 공공의료체계 혁신 기반인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조사 및 시립병원, 보건소 시설장비 확충
- 메르스 치료 의료기관 지원 및 격리자 긴급복지
-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문병, 간병 문화 개선

■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0 → 3 (증 3억 원)

- 공공의료 혁신과 기반 확충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조사

■ 감염병 관련 시립병원 시설장비 확충 638 → 759 (증 121억 원)

- 시립병원 시설 확충(85억원) 및 의료장비(36억원) 보강

- **감염병 등 진단체계 강화** 36 → 78 (증 42억 원)
 -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예방, 대기질, 오염물질 검사 장비 확충
- **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 장비확충** 2 → 163 (증 161억 원)
 - 보건소 의료장비(100억 원) 및 특수 구급차(28억 원) 확충
 - 선별진료소 확충(24억 원), 발열감지기 및 방역약품(9억 원)등
- **메르스 피해 보상** 184 → 339 (증 155억 원)
 - 시립병원 손실보전,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, 격리자 긴급복지 지원
 -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에어텐트, 음압기 등 지원(민간병원 33개소)
- **문명, 간병 문화 개선 등** 49 → 67 (증 18억 원)
 - 서울의료원, 서남병원, 동부병원 면회접견실 설치, 공동간병인 확충

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- 208억 원

편성방향

- 위축된 중국·동남아 지역(메르스 이후 방한 취소객의 76.7%) 관광객 대상으로 서울 관광마케팅 집중 지원

■ 서울 글로벌 마케팅 43 → 165 (증 122억 원)

- 중국, 동남아 대상 광고 마케팅 (증 57억 원)
- 한류스타, 콘텐츠 활용 관광마케팅 (증 15억 원)
- 해외프로그램 서울 촬영지원, 현지 밀착 마케팅 등 (증 50억 원)

-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12 → 37 (증 25억 원)
 - 온오프라인 프로모션과 인터넷 매체 광고 등

- MICE 해외 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17 → 24 (증 7억 원)
 - 해외 MICE 전시회 설명회, MICE 전문매체 활용 광고 등

- 서울 관광인 대회 개최 0 → 2 (증 2억 원)
 - 환대서비스 품질개선 결의대회, 시민과 함께 캠페인, 관광인 격려

- 서울 트래블 마트 개최 0 → 5 (증 5억 원)
 - 국내외 관광업계 참여 트래블 마트(관광 교역전) 운영, 팸투어 등

3 메르스로 침체된 문화 활력 회복 - 255억 원

편성방향

- 공연예술의 공급과 수요증대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사업의 발굴 확대
-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, 메르스 피해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중심으로 지원

- 시민 공연예술 관람 기회 확대 0 → 100 (증 100억 원)
 - 청소년 권장 공연 단체 관람지원,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기획공연
-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119 → 127 (증 8억 원)
 - 차상위 계층 문화카드(5만원) 지원(국비매칭)
- 박물관 활성화 지원 12 → 24 (증 12억 원)
 - 박물관, 미술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람료 지원

-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 0 → 25 (증 25억 원)
 - 연극, 음악, 전통예술, 전시, 문학 등 창작활동 지원(공모, 심사) 등

-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20 → 55 (증 35억 원)
 - 메르스 직접 피해 지역상권 활성화, 자치구 문화행사 지원

- 문화예술기관 공연예술 지원 315 → 326 (증 11억 원)
 - 세종문화회관, 시향 등 전문기관 공연예술 확대

-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0 → 7 (증 7억 원)
 - 아마추어 예술단, B-boy 등 서울광장 상설 무대 운영

4 소상공인, 전통시장, 서민가계 안정 - 1,589억 원

편성방향

-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,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우선 투자

- 메르스 피해 기업 긴급 금융 지원 225 → 1,314 (증 1,089억 원)
 - 소기업 · 소상공인 긴급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
- 중소기업 긴급 신용보증 지원 190 → 322 (증 132억 원)
 - 메르스 피해기업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
-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 제품 판매지원 0 → 17 (증 17억 원)
 - 주얼리, 수제화 등 도심제조업, 지하도 상점가 등 판매촉진 행사 지원

■ 동대문 쇼룸 운영 지원 0 → 20 (증 20억 원)

- 동대문 상권 공동브랜딩, 소상공인 시장 개척, 통관 및 물류 지원 등

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96 → 262 (증 166억 원)

-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확대, 주차장 및 화장실 환경 개선 등

■ 고용악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 0 → 100 (증 100억 원)

- 메르스 피해업종 종사자,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

■ 여성, 어르신 등 일자리 확대 701 → 730 (증 29억 원)

- 새일 여성 인턴, 직업훈련, 어르신 활동지원 등

5 소방·재난 및 사회·보건 안전망 구축 - 842억 원

편성방향

-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소방 장비 교체·보강
- 일상생활에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SOC 사업 투자
-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

■ **기동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** 0 → 177 (증 177억 원)

- 감염전용 특수 구급차(2대) 등 소방 장비 2,460개 보강, 소방안전 교육 강화 등

■ **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** 2,040 → 2,530 (증 490억 원)

-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70량 조기 도입

■ **교육·보육 환경 개선** 559 → 675 (증 116억 원)

- 노후한 학교 화장실 81개교 162동 전면 및 부분 보수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

6 재원의 효율적 사용 위한 연내 마무리 사업 - 114억원

편성방향

-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민이용 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 반영

■ 구일역사 성능개선 0 → 61 (증 61억원)

- 서남권 돛야구장 준공에 맞춰 구일역 서측역사 증축공사비 부담분

■ 돛야구장 주변환경 개선 및 운영 16 → 42 (증 26억원)

- 서남권 돛야구장 개장(9월)에 대비한 마무리 사업비

■ 전통문화시설 건립 22 → 36 (증 14억원)

- 문화재 조사 등으로 지연된 전통국악예술당 준공('15.12월) 마무리 공사

7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- 1,577억 원

편성방향

- '15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부담분 확보

■ 의료급여 사업	7,729 → 8,529 (증 800억원)
■ 풍납토성 복원	300 → 500 (증 200억원)
■ 가정양육 수당	2,863 → 3,097 (증 234억원)
■ 영유아 보육료	5,881 → 5,969 (증 88억원)
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	7 → 88 (증 81억원)

8 기타 의무적 경비 - 2,941억 원

편성방향

- `14년 결산결과에 따라 자치구,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지출분 반영

■ 자치구 교부금	24,454 → 25,167 (증 714억원)
· 조정교부금		21,568 → 22,213 (645)
· 시세 징수교부금		2,886 → 2,954 (69)
■ 교육청 전출금	21,650 → 23,524 (증 1,874억원)
· 지방세		9,857 → 10,081 (224)
· 지방교육세		11,793 → 13,443 (1,650)
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	1,720 → 2,073 (증 353억원)

감사합니다